

### 모든 공덕 일체중생에 남김없이



마무리

99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뛰어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할 때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율한해 자신이 이루어 했던 다짐들이 모두 결실을 맺었는지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보다 앞선 내일의 삶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반성과 회개는 다시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사회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불자로서의 삶을 다스리는데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에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려야 한다. (회향경)

시시각각 움직여서 밤과 낮이 잠깐 사이에 흘러가고, 하루 하루 흘러서 보름과 한달이 번개처럼 기어오르고, 한달달 지나가서 환희의 일년이 다가오고, 일년일년 흘러서 잠깐 사이에 죽음이 찾아온다. (발심수행경)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惡)의 뿌리를 뽑아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이. (수타니파티)

참으로 제행은 무상하여 생멸(生滅)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생한 것은 또한 멸하니 그것을 원이아말로 인연이구나. (대반열반경)

삼매를 닦아 공경을 닦내라. 그러면 생각은 밝게 나타난다. 그러면 늙음과 죽음의 모습도 환하게 보이고 모든 법의 덧없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니라. (잡이환경)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 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일아함경)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을 잃지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아함경)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이 자기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다. 버리는 것이나 찾는 것이 다같이 더럽힘이다.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가는 정진이다. (선가귀감)

부처님을 믿는 사람, 끝내 다른 천신(天神)을 믿지 말라. 법을 믿는 사람, 남을 해치고 미워하지 말라. 스님들을 믿는 사람, 의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두려움 없으리라. (대반열반경)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법구비유경)

믿음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계행을 가져야 하며, 법을 자주 들어야 할 것이다. 인색함을 버리고 항상 회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지혜로써 법의 깊은 뜻을 살펴야 한다. (잡이환경)

스스로 자기 수행하고 법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중일아함경)

확고히 정진해 마음에 늘 번민하지 않는다면,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고 구하는 일이 달성될 것이다. (방불경)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다. (유교경)

활을 쓰야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출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비니화경)

삼중스님이 재소자 등의 교화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후원회가 영주 사기판매에 연루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형수의 아버지로 불리며 권회도 웅의 석방에 큰 역할을 했고 권회로움의 귀국과 함께 운동 포커스를 받은 삼중스님은 헌신적이고 오랜 교화생활로 인해 불교복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후원회 측은 영주 공장에서 게르마늄이 함유되었다는 인증서를 받고 모르고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게르마늄의 함유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영주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 없지 않다. 불자들에게 5천여개가 넘게 판매되었다고 하니 그 판매수익금의 규모와 사용 내역 또한 분명치 않아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므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좋은 뜻에 동참했던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무참히 무너져 생긴 깊은 상처는 빨리 아물것

경중을 준다.

"처음도 참되고 중간도 참되고 나중에 참되라." 초기 대승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불교일, 특히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초발심을 견지하고 처음과 중간 나중이 모두 참되게 하라고 당부한 부처님 말씀을 법대로 삼아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목탁 소리

천 미 회 (부산주재 기자)

# 열린마당

## 사판승의 역할

불교사(佛敎史)에서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역할분리는 근세부터다. 만암스님은 "수행승은 이판이요, 뒷바라지하고 대중 포교에 전념하는 승려는 사판"이라고 정리했다. 최근 교단내 중권분쟁등 여러 사태를 겪으며 조계종 승려의 80%가 넘는 사판승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사판과 이판의 경계가

모호하고 복지와 포교등 대중교화에 나서는 스님들이 늘면서 사판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조계종 원로인 승산스님(회계사 조실)의 "중무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생에게 봉사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지기의 이익과 힘을 늘리는 기회로 이용하려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일침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편집자 주)

### 계율에 맞게 소임자 뽑고 업무지원

철우(파계사 영산출원장)

율장에는 사판, 이판이란 용어가 없다. 사판이니 이판이니 하는 말 자체가 스님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소임을 맡아 살면서 사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 사판을 소임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소임자를 선거로 뽑는 일도 없으며 대중이 모여 갈마로 뽑게 되었다.

공평하고 소임을 맡을 만한 사람을 대중이 추천하여 집인 찬성의 동의가 있으면 소임자로 뽑아 일을 맡겼다. 부처님께서 라열성의 기사굴산에 계실 때 담파마라라는 비구가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대중을 위해 차체에 따라



공양창을 받도록 나누어주고 안내하는 지객 소임을 맡았다.

부처님께서 담파마라를 보고 제자중에서 성실하고 자세하게 함이 으뜸이라고 칭찬했다.

이 담파마라 비구가 소임을 맡아보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미스러운 일로 소임자에 관한 계율이 제정됐는데, 소임자가 하는 일을 몇몇의 불평이 있는 사람이나 개인이 잘못을 숨겨놓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계율이다.

소임을 사는 사람이 소임을 잘 살아 가량이 변하고 모든 불사가 원만하여 소임을 다했

으면 대중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잘살지 못하여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승단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기에 소임자의 자격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질 집인의 위계질서는 상좌 중좌 하좌로 나뉜다. 상좌가 결정을 하면 중좌와 하좌는 화합된 마음으로 상좌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요즈음 상·중·하좌가 한자리에 앉아 상좌의 어른이나 소임자를 선거로 뽑는 것은 율장정신에 위배되고 그렇게 하면 수시로 하좌들의 반란을 만드는 꼴이 되어 화합이란 말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계율로 소임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소임자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고 소임자를 뽑는 대중은 서로서로 소임자를 돕고 보호하는 상방의 의무사항이 내포돼 있다.

### 어느 자리서건 출가본분 잊지 말길

태진(봉은사 중무행정실장)

출가자라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문의 길에 들어선다. 공덕의 목표는 깨달음이니, 순간의 소임이 사관이라 한들 그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한 뿐이다. 도반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죽바라 경책을 잠시 거두고 돌아가며 소임을 보던 옛 스님들의 지혜와 자비심을 어찌 사관이라 격하하고 폄하시킬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결제철이 되면 특히 선방 문고리거나 잡아본 구합 수좌들은 물론이고 법남이 적은 신참 수좌들조차도 사찰 행정 소임을 보는



선배 출가자들을 눈 내리 깔고 업수이 대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출가자로서 화두에 몰두하거나 경학에 매진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 어려운 출가의 문턱을 넘어서서 고작 허깨비같은 사관일에 매달리는 게 싫어 보일 듯도 싶다.

그러나 근래 들어 교단이 조직화되고 체계가 잡히면서 사관, 즉 중무행정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오히려 이판의 그것들을 능가하고 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교단 운영과 관리, 더불어 대중 포교는 교단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중무행정 전문화까지 거론되며 대학 교육과정 개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관을 경시하는 편협된 시각은 확실히 전근대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느 자리에 서 있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화두처럼 품고 사는 출가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곳이 부처님 화상(龕上)이다. 문제는 출가 본분을 잊고 종편 지향적이고 세속화하는 것에 있을 뿐 사관이라는 명분에 있지 않다.

앞으로는 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보고, 사관이라는 정체성을 과감히 깨버리고, 당당히 삼보경제 수호와 포교를 화두로 삼아 정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다.

### 불교발전위해 행정전문승 양성을

황진수(한성대 교수·행정학)

지난번의 조계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밥 그릇 싸움'이라고 지칭했다. 비속한 용어인 '밥 그릇'을 관리하는 스님이 사관승이다. 말하자면 행정승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교 1600여년의 명맥을 이어오게 한 공로자는 사관승이다. 사찰의 건립, 보수 등의 불사, 사찰행정의 체계화, 신도상담, 이판승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대중 공사(公事)를 통한 투명한 행정, 본래의 원칙에 입각한 보시, 대외적인 면에서의 사찰의 대표성과 책임성 등은 모두 사관승의 몫이었다. 사관승은 사찰을 유지 발전시켰고, 이는 한국불교의 발전과 맥을 함께 했다.

그러나 사관승들의 이러한 큰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 과(過)가 더 크게 수면위로 부상하여 인구에 회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삼보경제를 순회하거나 뒤로 빼돌리는 사관



승, 즉 주변에 사기꾼들이 맴돌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된 사관승 '담배술'을 보다는 중버술'을 앞세워 사부대중을 대하는 관료적인 사관승, 종편정착전연의 사관승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 사관승들의 비효율적, 비생산적, 비신실적, 비체계적(4 비)행정이 불교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사관승이 진정한 사관승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는 사찰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과학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행정의 기법이 접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하며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기법이나 첨단기기는 그 용도가 허무할 뿐인 것

이다.

사관승의 역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가 사관승을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사행정, 재무행정, 사찰문화재 행정, 해외포교전문가,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둘째,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재무, 회계, 감사기법에 대한 지식, 리더십이론, 설법 방법론, 상담의 기법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찬회가 끊임없이 열려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을 기초로 한 자격시험제도를 두어야 한다. 일정한 사찰 보직은 자격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맡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찰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외부인사(전문가)를 포함시킨 위원회제를 두어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불교의 요체라 할 때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소신(燒身) 공양적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

사찰행정에 매진한 사관승의 법신에서도 사리가 나왔다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배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정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장애,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역할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날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을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산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사람을 살리는

## 육각성의 비밀

육각성의 신비와 기적적인 체험사례들을 통하여 우주에너지로 실용화시키는 방법,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필독서!

책자 무료 본인의 氣를 측정할 수 있는 氣측정 페이퍼 무료우송

1장 ◎ 신비의 히라야 육각성의 기적 ◎ 자연계를 관장하는 육각형의 수수께끼 ◎ 21세기를 우주파워 실용화시대로 ◎ 누구나 좋은 집터, 조상의 명당자리를 만들 수 있다.

2장 ◎ 육각성의 비밀 - 육각성은 수백파도 차단한다 ◎ 氣주입법 - 氣주입법의 개발, 원리, 방법 ◎ 천기, 지기, 명기에 대하여

3장 ◎ 경음점(인체경음점) - 인체의 경음점만 알면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조절 수 있고 가정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책자 200쪽 / 값 10,000원 / 우송료 3,000원  
우체국: 014092-0035728 김건순  
※전화로 주시면 당신의 氣와 사상 체질을 체크해 드립니다.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위, 장, 간, 신경통)

5분 충전으로 밤새도록 뜨끈뜨끈 수정 온돌 불로방

韓國氣功研究院 (02) 455-6944, 453-5851

혜성(慧性)스님의 법화경 신행기를 읽으시면 난산난해한 법화경에 대한 신심과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 법화경신행기 양약(良藥)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구원실성야신 석가모니본님과 개성불도의 모범연화경과 우리들 일체 중생과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이라 함이라 따라서 모범을 떠나 별도로 부처를 찾지 말며, 또한 중생을 떠나 별도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배부처 ◎ 경남 함안 삼불사 ☎(0552)583-3107 ◎ 부산도서출판 위음왕 ☎(051)804-5714 ◎ 전국불교서점

도서출판 위음왕